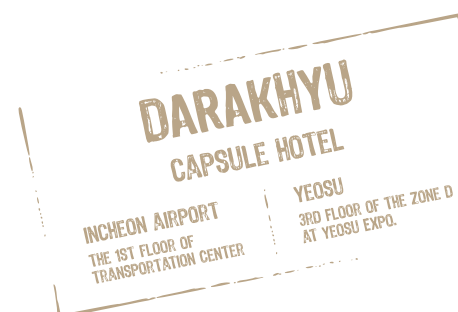


On Staying

Welcome
Bon voyage



나의 여행은 집을 나선 그 순간 이미 시작됐다.



어딘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D A R A K H Y U

잠시, 머물러도 좋겠다.

SELF
CHECK-IN
HERE
↙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A photograph of a person lying in bed, reading an open book. The bed is covered with a white sheet, and a grey sweater is draped over the back of the bed. The scene is softly lit, creating a cozy atmosphere. The text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바스락거리는 이불, 맨발의 편안함
차분하며 따뜻한 공간. 작은 여유로움이 마음 한구석을 가득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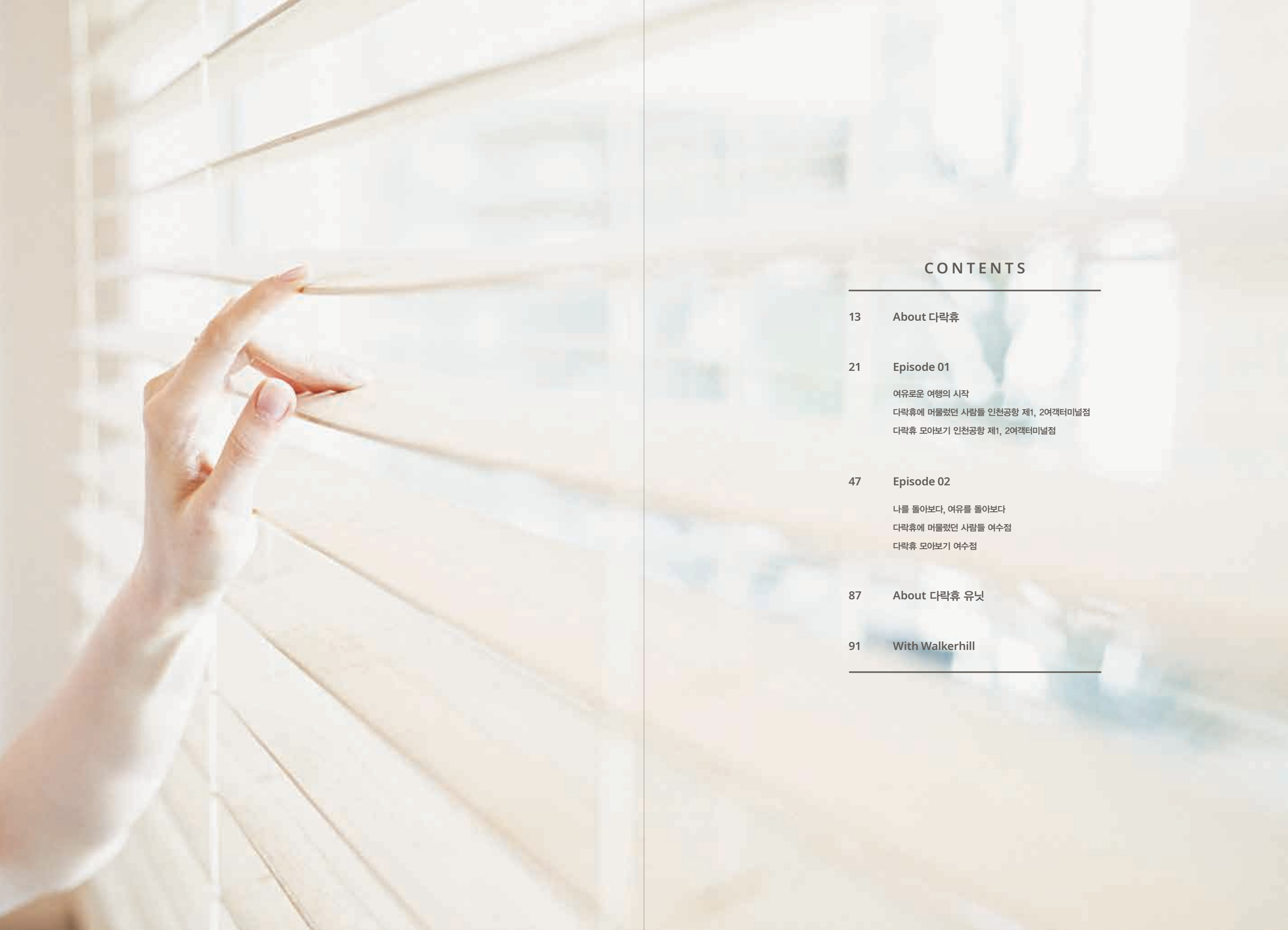
D A R A K H Y U

CAPSULE HOTEL BY WALKERHILL
INCHEON AIRPORT

다락휴는 다락같이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캡슐 호텔입니다.

트렌디하며 숙면에 방해되는 부분을 덜어낸 안락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로
즐겁고 합리적인 여행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앞으로 만들어 갈 추억에 집중할 수 있는 곳.
바로, 다락휴입니다.



CONTENTS

13 About 다락휴

21 Episode 01

여유로운 여행의 시작

다락휴에 머물렀던 사람들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점

다락휴 모아보기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점

47 Episode 02

나를 돌아보다, 여유를 돌아보다

다락휴에 머물렀던 사람들 여수점

다락휴 모아보기 여수점

87 About 다락휴 유닛

91 With Walkerhill



매일 바라보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다.



DARAKHYU INCHEON AIRPORT

DARAKHYU
Incheon Airport Terminal 1

Located in 1F Transportation center
(public area)

DARAKHYU
Incheon Airport Terminal 2

Located in B1F Transportation center
(public area)

DARAKHYU CAPSULE HOTEL



여유로운 여행의 시작

INCHEON AIRPORT

에디터 | 박선영 포토그래퍼 | 김병수

이번 여행은 나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고자 마음먹은 여행이었다. 나를 피로하게 하는 매일의 여러 가지로부터 잠깐의 해방. 나의 여행은 집을 나선 그 순간 이미 시작했다. 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인천공항1터미널 역에서 나와 몇 걸음 걷자 다락휴가 나왔다. 공항에 위치한 다락휴는 나에게 안정맞춤인 공간이었다. 두근거리는 이 마음이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피로해지지 않도록, 비행에 오르기 전까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말이다.

키를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느낌이 드는 공항과는 상반되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나를 맞았다. 파삭파삭해 보이는 하얀 침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주름을 만들어주고 싶도록 깔끔했다. 풀-썩. 나의 이 마음을 지나칠 수 없어 침대에 바로 뛰어들었다. 그 상태로 몸을 쭉 늘여가며 잠시 이 기분 좋은 바스락거림을 즐겨보았다.

오늘 밤 나의 편안함을 책임질 침대와의 만남은 잠시 뒤로하고 다락휴 밖으로 나왔다. 이 허기를 해결해야 했다. 여행의 큰 묘미 중 하나인 맛있는 음식! 그래서 맛집은 알아보고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다락휴가 있는 공항에는 평소 애 먹었던 전국의 맛집들이 잔뜩 모여 있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쉽고 빠른 맛집 투어를 마치고 이런저런 주전부리를 몇 개를 사가지고 방으로 돌아왔다. 주전부리와 함께 미뤄두었던 드라마를 보기 전, 몸 여기저기에 잔뜩 붙은 음식 냄새와 먼지들을 씻어내기 위해 했다.

다락휴에는 샤워공간이 객실 밖에도 마련되어 있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객실을 이용하지 않고 샤워실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T2에 한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이용해보자. 아 그리고 보니 다른 사람과 한방에서 함께 머물게 되면 한 명은 방안 샤워실에서, 다른 한 명은 객실 밖 샤워실에서 씻을 수 있으니 꽤나 좋은 걸!

상쾌한 샤워 후 태블릿 PC와 하만카돈 스피커를 연결했다. 객실이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어지간한 소리는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집에서는 쉽게 키우지 못했던 볼륨 버튼을 이 안에서만큼은 크게 키울 수 있다. 역시 사운드가 뽕뽕하니 내용이 더 실감 나게 느껴진다. 볼륨 자유 만세!

언제 잠이 든 걸까? 일어나 보니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었다. 만약 체크아웃 시간과 비행기 시간이 애매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혼자만의 여유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니 말이다. 라운지에서 여행지로 나서기 전에 놓친 것은 없는지 차분히 확인해볼 수도 있다. 혹시나 빠진 서류가 있다면 객실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 나의 첫 번째 여행지 다락휴를 떠나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볼까? 어쨌든 나의 마지막 여행지도 다락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어젯밤의 편안함 때문인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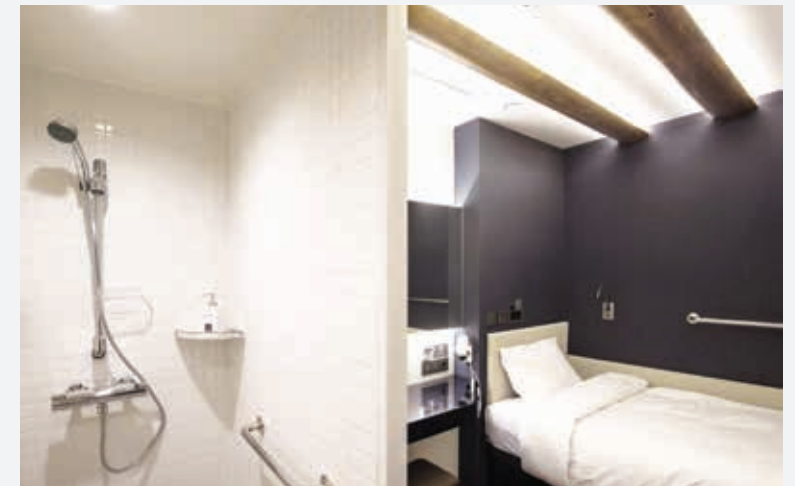




언제부터였을까. 늘 같은 곳에서 시작하고 끝맺는 나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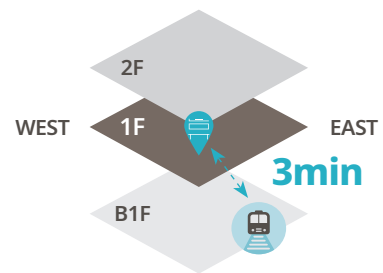
다락휴 모아보기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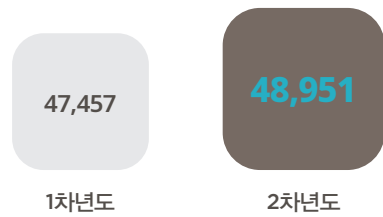
INCHEON AIRPORT TERMINAL 1

위치와 이동시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1층



연간 방문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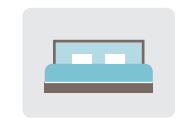
객실 총 60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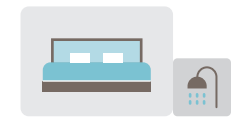
8 싱글베드
5.25 m² / 1.59 Py



21 싱글베드 + 샤워실
7.91 m² / 2.39 Py



10 더블베드
6.75 m² / 2.04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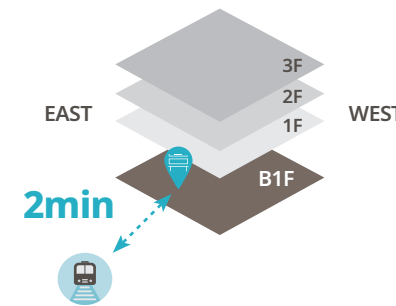


21 더블베드 + 샤워실
9.44 m² / 2.86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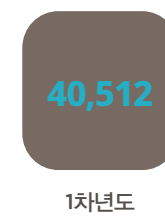
INCHEON AIRPORT TERMINAL 2

위치와 이동시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B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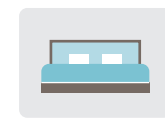
연간 방문객 수



객실 총 60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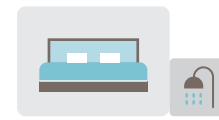
6 싱글베드
4.88 m² / 1.48 Py



9 더블베드
5.92 m² / 1.79 Py



4 더블베드(HUB)
9.44 m² / 2.86 Py



41 더블베드 + 샤워실
9.19 m² / 2.78 Py

다락휴 하나하나 살펴보기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점

시몬스 매트리스와 구스베게



다락휴의 모든 객실에는 시몬스 뷰티 레스트 매트리스와 잠케어 헝가리안 구스 베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일 때에도, 하룻밤 몸을 뉘 때에도 달콤한 꿀잠에 빠져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고 숙면을 보장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다락휴는 개별 유닛 구조로 만들어져 객실마다 와이파이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유기를 여러 객실이 함께 사용하지 않아 보안에 강하고 빠른 속도를 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로비 라운지 내 비즈니스 코너



운영시간 07:00 ~ 24:00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인터넷, 프린트, 팩스, 복사, 스캔

물품 보관함



짐 보관은 입실 전, 퇴실 후 당일에 한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보관 후 1일이 지나면 유실물 센터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하만카돈 블루투스 스피커



다락휴 객실에는 무선의 편리함을 겸비하고 최고의 사운드를 자랑하는 harman kardon ESQUIRE MINI Bluetooth Speaker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이 되는 다락휴 객실에서 마음껏 볼륨을 키워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 과금방식



시간단위 과금방식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정책으로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요금은 룸 타 입에 관계없이 시간당 4,000원.

공용 샤워실



제1여객터미널점 Terminal 1

객실 내에 샤워시설이 없는 경우, 객실 이용 고객만 공용 샤워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투숙객이 아닌 경우, 공용 샤워실만 별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이용안내 타월(객실 내 구비),
샤워용품(샤워실 내 구비)

제2여객터미널점 Termina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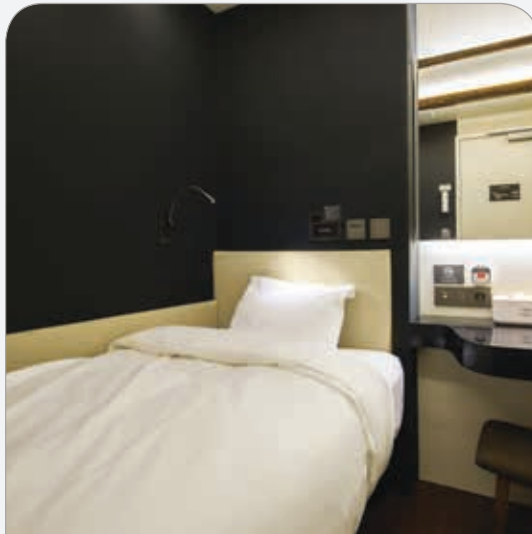
투숙객이 아니어도 유료 (1인 기준 8,000원, VAT 포함)로 1시간 동안 공용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의 경우, 샤워 시설이 없는 객실 이용 고객만 무료로 공용 샤워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이용안내 비누, 샴푸, 타월, 헤어 드라이기 제공

다락휴에 머물렀던 사람들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점

darakhyu_incheon_termina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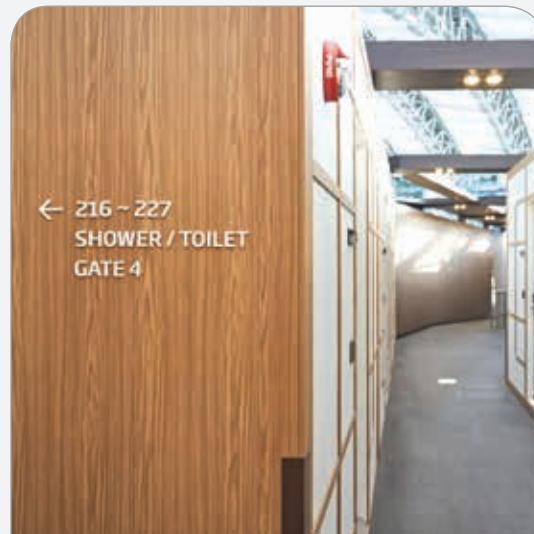


1,332 likes

Kwiseok L [#Tripadvisor](#) [#171204](#)

샤워실이 있는 객실로 예약을 잡았는데 침구 상태도 깨끗하고 수압도 좋아서 휴식하기에 좋았습니다.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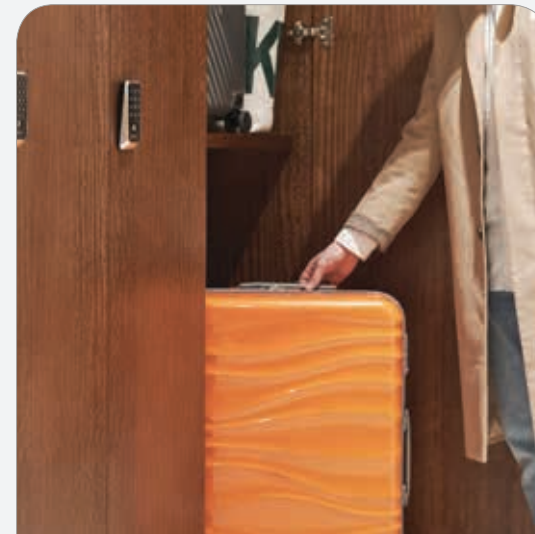


864 likes

riverj78 [#Tripadvisor](#) [#190401](#)

저렴한 가격에 편한 베드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화장실이 룸 밖에 공동으로 있는 게 불편한 듯 보였으나 오히려 밖에 있어 룸이 쾌적함.

Comments...



2,569 likes

witch4717 [#naver blog](#) [#190323](#)

너무 이른 새벽 비행기를 탈 때, 편하게 한숨 자고 빠르게 비행기에 오르고 싶을 때 이용하기 좋다.

more 169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d!!!!!!
[yanolja](#) amazing!

Comments...



7,656 likes

Damien077 [#Tripadvisor](#) [#190123](#)

Excellent!
If you want a very relaxing night's sleep.

- 아주 편안한 하룻밤을 원한다면 훌륭한 곳이다.

more 169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d!!!!!!
[yanolja](#) amazing!
[darakhyu](#) thanks:)

Comments...

다락휴에 머물렀던 사람들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점

darakhyu_incheon_terminal2



1,332 likes

horoyolee [#Tripadvisor](#) [#181020](#)

Totally enjoyed my stay!

-

다락휴에서 여유를 즐기세요!

more 169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od!!!!!!

yanolja amazing!

Comments...



3,562 likes

witch4717 [#naver blog](#) [#190323](#)

Comments...



2,569 likes

pola0216 [#naver blog](#) [#1900407](#)

평수는 넓지 않지만 청결하고 깔끔해서 하루정도 숙박하기에 괜찮았는데요. 시몬스 뷰티레스트 매트리스 더블침대와 기능성 베개 때문인지 침대가 엄청 폭신평신했더라고요. 수건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고 생수 2병, 드라이기 등 편의 용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more 169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od!!!!!!

yanolja amazing!

Comments...



7,656 likes

Damien077 [#Tripadvisor](#) [#190123](#)

아주 짧게 머물다가기엔 적절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공항 내에 위치해 있으니 비행기 놓칠 부담도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방음이 아주 잘 되어있어요. 캡슐 호텔이 다보니 방음을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전혀 소음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방해가 될 만한 큰 소음은 없었어요!

more 169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od!!!!!!

yanolja amazing!

darakhyu thanks:)

Comments...

DARAKHYU

YEOSU

DARAKHYU
Yeosu

Located on 3rd Floor of the D zone at Yeosu Expo

DARAKHYU CAPSULE
HOTEL



나를 돌아보다, 여유를 돌아보다.

■
YEOSU

에디터 | 박선영 포토그래퍼 | 김병수

여수엑스포역에 내리자 여수의 바닷바람이 나를 반기는 듯 불어왔다. 그 바람은 나를 어디론가 안내하려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 시선을 조금 올리니 길 건너 '다락휴'가 보였다.

몇 걸음 발을 옮기자 금세 다락휴에 도착했다. 프론트에서 사람이 아닌 셀프 체크인인 나를 맞았다. 낯선 사람을 어색해하는 내 마음을 알아준 걸까? 어쩐지 고마운 기분이 들었다. 방으로 들어가니 양옆으로 트인 긴 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캐리어를 방 한편에 세워두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쏟아지는 햇살을 잔뜩 머금은 이불이 바스락거리며 나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어서 와"라고.

잠을 풀고 방을 나오니 들어갈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객실과 라운지 사이 길목에 이곳에 먼저 머물렀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었다. 자신들의 추억을 기록하며 동시에 뒤에 올 낯선 사람을 위한 메시지들, 그 따뜻함에 굳어 있던 입가가 녹은 걸까?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먼저 온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다락휴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갔다. 정갈하고 맛있는 점심이었다.

라운지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여수를 돌아다닐 계획을 세웠다. 비치된 지도를 가져와 살펴보았다. 그것도 잠시, 통창 너머 펼쳐진 경치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 눈부신 햇살이 곧게 떨어진다. 일렁이는 바다에 닿아 부서진다. 물 위로 빛의 파편들이 반짝인다.

얼마나 바라봤을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다. 다락휴 프론트에 렌터카 서비스가 있길래 드라이브하며 바람도 쉴 겸 자동차를 렌트했다. 불필요한 절차 없이 쉽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어 편리했다. 시내로 나가 여수에서 유명하다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고, 바다와 여수가 함께 내려다보는 카페를 찾아가 보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도 동네 고양이도 하나같이 여유가 흘러

넘친다. 그 여유를 따르고 싶어 고양이를 쫓아가 보기도 하고, 해 질 녘엔 술 대신 노을에 취해 얼굴을 붉게 물들여 보기도 했다. 이런 충만함과 여유로움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이 언제였더라.

다락휴로 돌아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여수 밤바다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었다. 침대에 기대어 라운지에서 가져온 책도 읽고,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기도 했다. 포근한 침대와 폭신한 베개에 몸을 맡기자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이 되자 블라인드 사이를 뚫고 햇살이 쏟아졌다. 햇살이 나를 깨운다. 늘 나의 아침을 알리던 휴대폰은 어디 있는지 조용하다.

방을 나서자 아침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락휴에 머물고 있었나 보다. 평범한 토스터와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토스터 사이에서 어디에 빵을 구울지 고민하는 사람부터 풀 바셋 워커힐 블렌드 커피로 아침잠을 쫓고 있는 사람까지. 라운지에 활기가 넘친다. 가만 보니 진즉에 배를 채우고 여유롭게 테이블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에게서 느껴지는 여유로움 때문인지, 어제 고양이하고만 대화를 나누었던 탓인지 왠지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싶다. "좋은 아침이에요!"

짧은 휴식. 더 머물고 싶다. 깊게 숨을 들이 마시고 짧은 숨을 작게 뱉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분명 이 기분을 그리워하며 또 떠나는 날이 오겠지.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머물렀거리는다는 차를 놓치게 될 거야'라고 나를 재촉한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금방 걸어가면 되니 좀 더 이 기분을 느껴보라'고 나를 다독인다. 문을 나서면서 자꾸만 뒤를 보게 된다. 다시 다락휴를 만날까? 그럼 그곳은 어디가 될까? 햇살에 눈이 부시다.





창 너머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이 말을 건넨다. “어서 와”











새롭고 낯설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





DARA KHYU
COMPACT LUXURY HOTEL BY NAUDEM





EPISODE 02

다락휴 모아보기

여수점

YEO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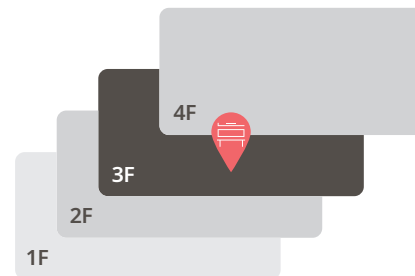
연간 방문객 수

1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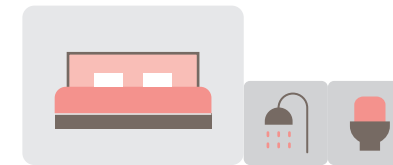
1차년도

위치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3층 DA 306(덕충동)



객실 총 56실



51 더블베드
+ 샤워실 + 화장실
9.12 m² / 2.76 Py



5 더블베드(오션뷰)
+ 샤워실 + 화장실
13.20 m² / 3.99Py

다락휴 하나하나 살펴보기

여수점

지리적 접근성



다락휴 여수점은 여수 엑스포 D동 3층 위치해 있습니다. KTX 여수 엑스포역에서 도보로 5분 내 리에 있어 여수 여행 시 짐이 많아도 부담 없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 서비스 (SK렌터카)



다락휴 여수점에서는 렌터카를 찾으러 별도의 서비스 지점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수 엑스포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SK렌터카 차량을 예약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납 역시 동일한 위치에 다시 주차하고 리셉션에 키를 반납하면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멋지고 편안한 여수 여행을 생각하는 다락휴 투숙객이라면 SK렌터카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셀프 체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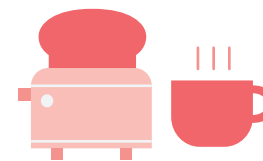
리셉션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셀프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마주침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친 상태라면,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션뷰 룸타입



다락휴 여수점에는 여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 룸 타입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로비 라운지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통창으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로 아침을 시작하고, 여수 밤바다에 아른거리는 조명을 바라보며 운치 있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미 조식 서비스



다락휴 여수점에서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토스트 및 시리얼과 커피를 제공합니다. 발뮤다 토스터와 일반 토스터 모두 준비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또 풀 바셋에서 특별히 블렌드 한 워커힐 시그니처 커피로 상쾌한 아침에 부드러운 향기로 여유를 더할 수 있습니다.

위치	다락휴 여수 로비
운영시간	07:00~10:00 am
이용안내	햄, 토스트, 시리얼, 커피

커뮤니티 라운지



여수의 바다 풍경을 즐기며 책을 읽고 다양한 테이블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다른 여행객들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서적, 인터넷, 프린트, 복사, 다양한 테이블 게임

다락후에 머물렀던 사람들

여수점

darakhyu_yeosu



1,332 likes

와용 #yanolja #180818

객실은 사진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오픈한지 얼마 안되서 정말 쾌적했어요! 제일 좋았던건 조식이 10시까지였는데, 9시53분에 나가서 빵도 우유도 없었어요ㅠ 제가 늦은거라 어쩔수없다 싶었는데 직원분이!!! 빵이랑 햄이랑 우유를 새로 꺼내주셨어요!!♡0♡ 친절친절♡감동♡

Comments...



864 likes

chan #Agoda #190130

나는 일단 오션뷰를 이용했는데 아침에는 바다가 잘 보이지 않는다. (햇빛으로 인해 커튼을 쳐둬) 하지만 12시가 지나면 커튼을 모두 올려 오션뷰가되며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Comments...



2,569 likes

witch4717 #naver blog #190323

편안한 침구에서 숙면을 하고 다음 여행을 하는게 좋겠조?? 그것에 최적화입니다. 여수 중심가 엑스포역 앞이라 어디를 가든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번잡스럽지 않아 좋습니다. 이 금액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니 감동이네요.

more 169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d!!!!!!
yanolja amazing!

Comments...



7,656 likes

Damien077 #Tripadvisor #190123

장점은 역에서도 걸어갈수 있다는 점! 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일정상 밤에 늦게 여수에 도착했기때문에 잠깐 잠만잘곳을 원했는데 기대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간단했지만 조식 서비스도 좋았고, 뷰를 보며 커피 한 잔하니 정말 곳곳!!

more 169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d!!!!!!
yanolja amazing!
darakhyu thanks:)

Comments...

다락휴에 머물렀던 사람들

여수점

darakhyu_yeosu



8,647 likes

공공이 #booking.com #190127

기차역 바로 앞에 있어서 체크인, 체크아웃 하기
좋았어요.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둘이서 한 침대에서
 잤는데 크게 비좁지 않았어요. 근데 방은 엄청 좁아요.
조용했지만 방이 프라이빗 하지는 않네요.
별로 불편한 점 없었어요.

Comments...



6,864 likes

2soy2 #naverblog #190401

엑스포역이 바로 앞이어서 두박이여행자분들에게도
추천! 여행일정이 빡빡하여 잠만 자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 뷰가 생명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옵션으로 바다뷰선택가능)

Comments...



2,569 likes

ruri0713 #tripadvisor #190107

먼저 새호텔이어서 그런지 매우 깨끗했어요. 객실은 가
격대비 고급스러웠습니다. 다만 3평으로 계시되어있는
건 알고있었지만 작았어요. 혼자살때는 아무불편은 없
었으나 가족단위분들에게는 조금 힘들거 같아요. 원래
혼자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매번 게스트하우스에 갔
지만 평일에는 게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섭더라고요. 그
래서 이번에는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안쪽으로 달라고
하면 더 조용합니다. 오션뷰 금액차이없으니 객실있으
면 오션뷰로 사용하는게 더 좋을것 같아요.

more 4657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
yanolja amazing!

Comments...



7,656 likes

Damien077 #Tripadvisor #190123

2018년 8월에 오픈하여 오픈한지 얼마 안된 호텔이라
그런지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면창에 조명, 원목,
소품들이 어우러져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가성비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수준이 낮은게 아니란 것을 로비만 봐도 알 수 있었어
요. 시간대별로 조도가 달라져 그 나름의 무드를 조성해
주고, 초타야 다이칸야마 점의 뮤직 큐레이터가 선정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more 169 Comments

Tripadvisor goooooooooo!!!!!!
yanolja amazing!
darakhyu thanks:)

Comments...

미디어에서 본 다락휴

바다를 품은여수 캡슐호텔서 일상의, 씬표

매일경제 2019년 5월 27일 B03면 (여행)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다. 밤바다는 보고 싶지만 북적이는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싶진 않다.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하는 여수 투어가 있다. 나 홀로 여행객이 주를 이루는 게스트하우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합석·동행 문화를 호텔에 들여온 듯한 코스다. 일단 일정이 거창하지는 않다. 한화 아쿠아플라넷과 장범준이 찍었다는 삼합집에 가고, 커피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정이다. 다음 날에는 홀로 여수 바다를 만끽하다 돌아오면 된다. 마음에 든다고? 그럼 여수행 기차 티켓부터 끊어 보자. KTX를 타고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는 3시간이 걸린다. 여수 엑스포 역사에서 다락휴 캡슐호텔까지는 도보로 3분 거리. 캡슐호텔이지만 '콤팩트 럭셔리'를 추구해 갖출 것은 다 갖추었다. 두 명이 지내도 무리 없는 넉넉한 크기에, 창문 너머로 여수 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매트리스와 침구, 비품은 워커힌 호텔과 동일한 수준이다.

서둘러 짐을 풀고 투어를 함께 할 이도경 크루(다락휴 캡슐호텔에서는 호텔리어가 아닌 '크루'라는 호칭을 쓴다)를 만났다. '크루투어'는 호텔에서 기획한 게 아니라, 도경 크루가 직접 기획한 패키지라고 한다. 자주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이도경 씨는 여행 중 음식 때문에 아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다. 캡슐호텔 특성상 1인 여행객 손님이 주를 이루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손님들을 돌려보내기 아쉬워 발 벗고 가이드를 자처했다.

아쿠아플라넷을 보다

오후 3시에 체크인을 하고 라운지에 모여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나눈다. 활발한 도경 크루가 어색한 기류를 깨고 먼저 사람들을 이끈 곳 여수 아쿠아플라넷이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국내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여수의 관광 명소다. 혼자서도 둘러볼 만한 곳이지만 크루투어 일정에 넣은 이유는 '황금 시간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놓치면 후회할 만한 굵직한 쇼는 세 가지. 바이칼 물범쇼, 아쿠아 판타지쇼, 벨루가 식사시간이다. 4시에 아쿠아플라넷에 도착하면 여유 있게 세 코스를 소화할 수 있다.

장범준 덕에 골든벨 올린, 돌문어상회

이순신 광장은 밤이 되면 낭만포차 거리로 관광객이 북적인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현지인들을 비롯한 호텔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본 결과 제값을 못한다는 평이 다수다. 도경 크루는 여수에 오면 꼭 '돌문어 상회' 삼합을 먹어 봐야 한다고 소개했다. 돌문어 상회는 '장범준이 방문하면 하루 종일 공짜'라는 재밌는 마케팅을 하는 곳으로, 얼마 전 장범준이 방문해 공약을 지켜 더욱 화제가 됐다. 큼직하지만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돌문어와 여수 특산물인 새콤한 갯김치, 삼겹살과 전복 등 각종 해물을 한 판에 북아내는데, 고명처럼 올라간 버터 한 조각이 풍미를 한층 더했다.

자전거 타고 오동도 한바퀴

오동도는 수정동에 있는 작은 섬으로 여수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꼽힌다. 섬 모양이 오동잎처럼 생겨서,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동도'라고 불린다는 다양한 설이 있다. 여수 다락휴 호텔에서 자전거를 타고 10분이면 오동도에 닿는데, 여수시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여수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1000원에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으며 오동도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건넜다. 왼쪽으로는 쪽빛 바다, 오른쪽으로는 오동도 동백열차가 손님들을 싣고 지나간다. 오동도에서는 자전거를 두고 두 발로 걸어야 한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짧은 산행이 이어지는데, 셋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나가보아야 한다.



돌문어상회의 '돌문어삼합'



고소동 벽화마을

절경을 이루는 기암절벽과 남해 바다를 누비는 대형 선박들이 저 멀리 보인다. 전망대까지 오르니 파노라마뷰의 남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마음이 땡 뚫릴 정도로 시원한 바다를 보고 내려와 힘껏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낭만카페에서 밤바다 구경

고소동 벽화마을은 자꾸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다. 굽이굽이 미로 같은 길을 따라 벽화를 구경하다 보면 어느덧 언덕 정상에 도착한다. 여수 밤바다를 보기 가장 좋은 스폿으로는 낭만카페를 추천한다. 카페 벽면이 통유리로 돼있어 여수 밤바다가 한눈에 담긴다. 해 질 녘에 찾으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알록달록한 전구를 달고 종포 연안을 누비는 크루즈는 여수 밤바다를 오색빛으로 물들인다. 시골벽적인 포차에서 기울이는 소주 한잔도 좋지만, 여수의 밤을 맞이하기 좋은 곳이다.

나만의 여수 기념품 라드공간

여수를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하기 위해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에 가기로 했다. 라드공간에서는 여수 워터볼, 바다 자석, 바다 키링 등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 수 있다. 햇살 잘 들어오는 공방에서 고양이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워터볼에 들어갈 피규어와 반짝이를 골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만들기 체험을 했다. 조개, 진주 장식으로 꾸민 하나뿐인 워터볼은 추억을 떠올리기 좋은 소품 역할을 톡톡히 했다.

더 알찬 여수 감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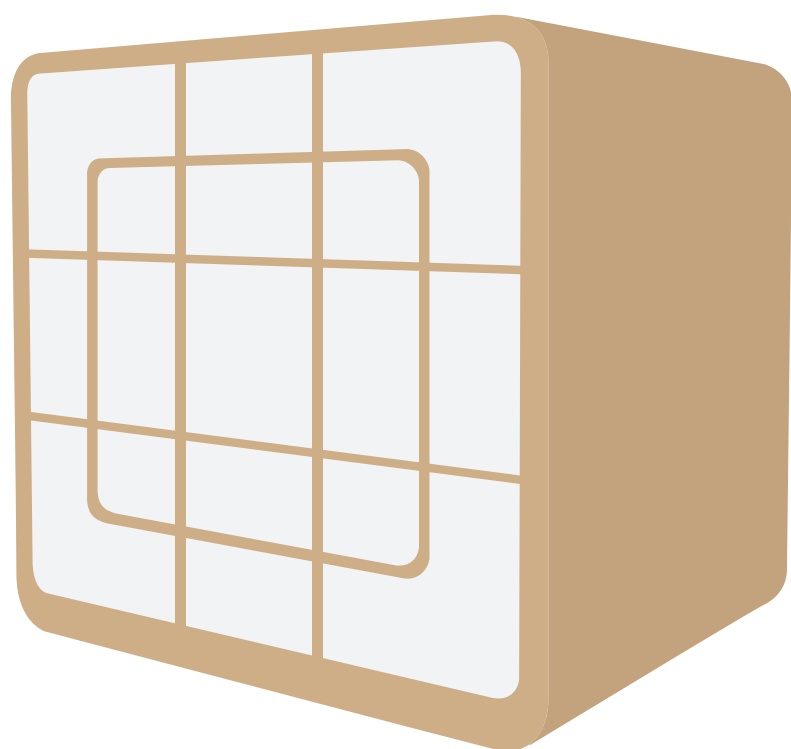
다락휴 여수점 스탠더드 객실 1박과 조식을 기본 구성으로 하는 크루투어 패키지가 있다. 양이 많아 혼자서는 먹기 어려운 여수 지역 대표 음식인 해물삼합을 여럿이 함께 맛볼 수 있다. 아쿠아플라넷 또는 해상 케이블카 체험(택1·당일 선택)이 포함되며 저녁에는 낭만카페를 방문하거나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여수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소소한 캔맥주 파티를 즐기는 등 1박2일간 여수를 알차게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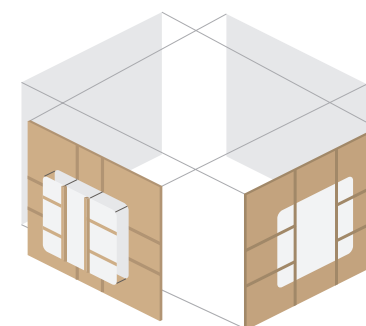
D
A
R
A
K
H
Y
U

다라후
DARAKHYU



국내 최초의 캡슐호텔인 다락휴는 한국의 전통 창(窓)을 디자인 모티프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 디자인, 독립된 공간에서의 안락함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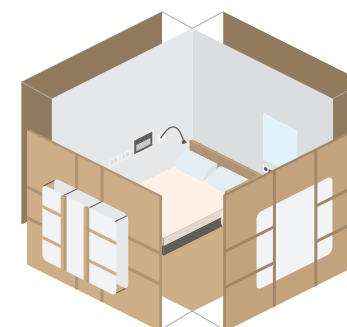
다락휴 유닛의 건축 과정



구조 결합



인테리어 시공



완성·현지화

다락휴 유닛의 특징점



다락휴 유닛은 유연합니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유닛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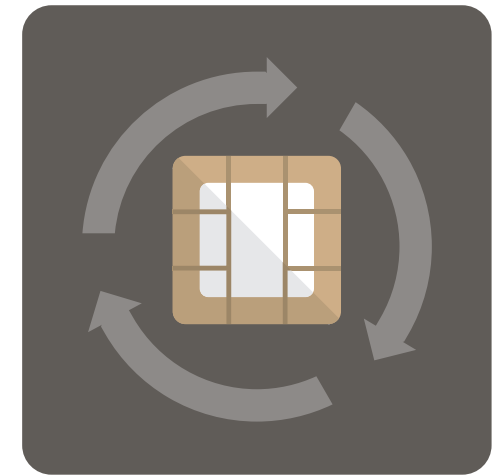
다락휴 유닛은 가변적입니다.

유닛을 다양한 사이즈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레이아웃과 기능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락휴 유닛은 효율적입니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유닛을 공간에 구성하여 일반적인 호텔 건축보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다락휴 유닛은 지속 가능한 건설 방법입니다.

유닛을 활용하여 만든 호텔을 언제든지 해체하거나 이동시키고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With Walkerhill

다락휴, 워커힐이 함께합니다.

워커힐은 1963년 처음 지어진 이래 도심 속 자연에서의 복합적 휴식과 문화,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경험을 선보여 온 대한민국 대표 호텔 사업자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자체 브랜드 '워커힐 호텔앤리조트(WALKERHILL HOTELS & RESORT)'로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고, 고객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RAND WALKERHILL SEOUL

그랜드 워커힐 서울(Grand Walkerhill Seoul)은 럭셔리 호텔로서 더욱 격조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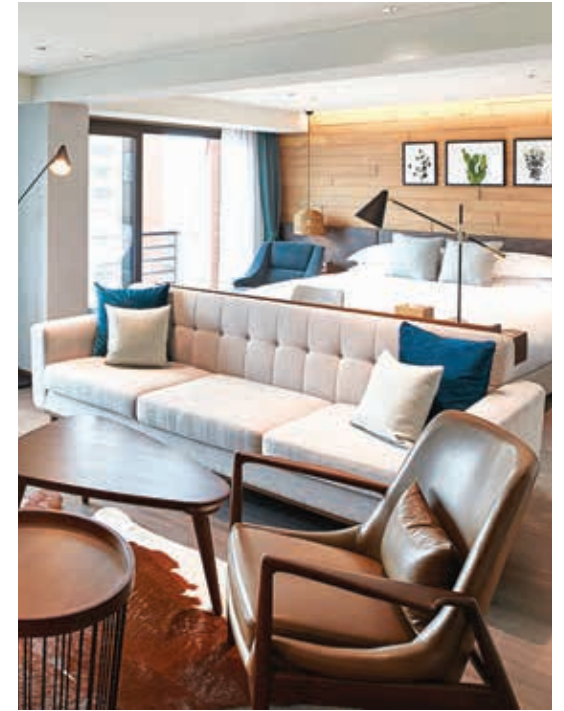
VISTA WALKERHILL SEOUL

비스타 워커힐 서울(Vista Walkerhill Seoul)은 '리프레싱 비비들리 (Refreshing, Vividly)'라는 컨셉트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단순한 휴식 이상의 생동감 넘치는 경험들을 제공하며 새로운 영감과 활력, 삶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DOUGLAS HOUSE

아차산 숲에 위치한 '더글라스 하우스(Douglas House)'는 '어른의 휴식을 위한 숲 속 아지트'로 자리 잡으며 마음의 치유와 재충전을 제공합니다.



다락휴 D A R A K H Y U CAPSULE HOTEL BY WALKERHILL

다락휴는 2017년 1월 인천공항에 첫 캡슐호텔을 선보이고 잇달아 2018년 8월에 '여행자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여수에 오픈하여, 컴팩트한 공간에 특급 호텔의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ARAKHYU**
COMPACT LUXURY HOTEL BY WALKERHILL



다락휴여수점
직원분들,

친절한 서비스로
즐거운 여수여행
하고 갑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락휴, 우린 다음에 언제 어디서 또 만나게 될까?

Publication Right

퍼낸이	다락휴
기획/디자인/글	Perception Inc.
총괄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홍보파트
사진	Savor Photo

이 책의 저작권은 다락휴에게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유포를 금지합니다.

다락휴

E-mail	capsulehotel@sk.com
Website	www.walkerhill.com/darakhyu/hub/kr/

다락휴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

Address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1층(일반구역)
TEL	032-743-5000
FAX	032-743-5001

다락휴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Address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B1F (일반구역)
TEL	032-743-5008
FAX	032-743-5010

다락휴 여수점

Address	59723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 D동 3층 Da-306호 (덕충동, 국제관)
TEL	061-661-5400
FAX	061-661-1172



P.

D A R A K H Y U

www.walkerhill.com/darakhyu/hub/en/